

**“대전제1과학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해 신탄중양중학교를 꼭 폐교해야 하는지?”**

*** 오 태 진 의원**
(새누리당 대덕구 제3선거구)



* 오 태 진 의원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시장·교육감과의 일괄질문·답변을 1문 1답 방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 오태진 의원

새누리당 대덕구 제3선거구 오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영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우수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신호 교육감님!

본 의원은 신탄진 지역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대전제1과학 고등학교 문제와 이와 맞물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신탄중앙중 학교 폐교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과학고 이전으로 말미암아 촉발되었던 신탄중앙 중학교 폐교 관련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14시 06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4시 13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보시는 바와 같이 신탄중앙중학교 폐교 문제는 지난 8월 13일 교육청에서 과학고등학교를 신탄중앙중학교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한 직후부터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대덕구 지역은 인구 20만의 도·농·산업 복합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환경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 과학고등학교를 대덕구로 이전한다는 교육청의 발표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여건이 개선되리라는 희망을 준 대단한 사건이었고, 주민들은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멀쩡하게 있던 신탄중앙중학교를 폐교하고 그 자리에 과학고등학교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한 신탄진 지역 주민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째서 학생 수가 650명이나 되는 학교를 한 순간에 폐교한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과학영재학교를 대전에 유치하기 위해서 과학고등학교를 신탄중앙중학교 자리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43년 전통의 중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사리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게 주민 대부분의 여론입니다.

신탄진 지역주민들이 과학고등학교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고등학교를 이전하려면 기존의 학교를 건드리지 말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신탄중앙중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의 아이들은 신탄진중학교와 대청중학교로 분산되어 먼 거리를 통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탄중앙중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만 8천여 명의 동문들 역시 과학고가 들어오기 위해 모교를 폐교한다는 말에 난데없는 얘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신탄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용호분교 부지에 과학

고등학교를 이전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반대여론에 밀려 과학고 이전을 미루어 왔다가 금년 12월에 과학고 이전 지를 최종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집회가 시작되고 반대의견이 있기 시작한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과학고 이전과 관련하여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여론의 반대가 잠잠하기만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원래의 행보를 반복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김신호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교육청에서 발표했던 과학고등학교 이전 적지는 신탄중앙중학교밖에 없다는 생각에 한 치의 변함도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과학고등학교 이전 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학교를 폐교하지 않고 대덕구 내 다른 장소로 바꾸실 의향은 없는 것인지,

셋째로 만약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울러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와 대전과학고등학교 이전, 신탄중앙중학교 폐교에 관한 제반사항들이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앞으로 신탄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과학고 이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의 교육행정이 시민의 뜻에 따라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교를 폐교하고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조정하는데 불과 수개월 사이에 주마간산 격으로 밀어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일부에서는 신탄진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무리하게 과학고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폄하하고 있지만 그동안 교육청에서 일언반구 언질도 주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없앤다고 하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탄중앙중학교 폐교 문제는 학생들의 통학권 확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주거이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끝으로 신탄진 지역에 과학고등학교도 들어오고 신탄중앙중학교도 존속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앞으로 신탄중앙중학교 폐교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전향적인 자세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또한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께서는 보다 유연한 자세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신호 교육감

존경하는 오태진 의원님의 대전교육 사랑과 신탄진 지역 구민 사랑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의 시정질문 말씀에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첫째, 과학고등학교 이전 최적지로 신탄중앙중학교밖에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둘째, 과학고등학교 이전지를 학교를 폐교하지 않고 대덕구의 다른 장소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셋째, 만약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넷째, 대전과학영재학교 유치와 대전과학고등학교 이전 그리고 신탄중앙중학교 폐교에 대한 제반사항들이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어떤 역학 관계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신탄진 지역 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해서 과학고 이전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네 번째 질문까지는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대전교육의 숙원인 과학영재학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과학영재학교는 신설이 아니고 현재의 과학고등학교를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입니다.

과학영재학교는 우리 대전 학생들도 입학하지만 학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대전 학생들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전 학생만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과학고등학교를 가지려는 것이고 과학영재학교를 유치한 경우에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를 꼭 더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의 과학 영재들을 가급적 더 많이 육성하고 좋은 고등학교를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하나의 과학고를 허용해 주는데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과학고를 하나 더 갖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과학영재고등학교를 유치했을 경우에만 과학고를 하나 더 가질 수 있고 둘째, 현재의 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을 지침으로 내려온 교육과학기술부 즉, 정부의 정책입니다.

과학고등학교 신설은 안 되고 고등학교를 전환하도록 한 정책은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한데 학교를 또 설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부지매입과 학교 건축에 따른 예산 낭비가 크며 신개발지가 아닌 이상 부지 구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고등학교처럼 학구가 대전광역시 전체라야 학구문제 또는 통학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의 개교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과학고등학교 개교가 지연되면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교육이 끊기게 될 것 아닙니까?

또 행정적인 전제조건도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학교부지가 적어도 6,000평 내외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 6,900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소인수 학급을 가지기 때문에 교실이 많이 필요하고 첨단과학동, 기숙사, 부대시설, 강당, 식당 등 많은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전환되는 학교의 학생 수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입지 조건이 우리 대전광역시 전역에서 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광역시 전역에서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저는 명문고인 과학고등학교를 대덕구 특히, 신탄진 지역에 설립하고자 하는 큰 정책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대덕구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존경하는 대덕구민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그래서 교육감이 공약으로 걸었을 뿐 아니라,

대전의 5개구 중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인구 감소가 타구에 비해서 더 심각하여 대덕 구민의 염원에 보답하고, 대전광역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덕구에서 고등학교를 하나 더 원하시는데 정부정책 처럼 고등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하게 되면 고등학교가 하나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정을 보고 하고 이전에 있었던 부산, 서울, 경기, 대구와 그런 곳과 달이 전례 없이 이번 대전의 경우만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덕구 내에서 모든, 지금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하는 최적의 학교가 신탄중앙중학교임을 분석 확인 하고 전환 예정 학교로 언론에 발표했던 것입니다.

‘확정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언론에 ‘예정하였다.’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의원님의 질문 말씀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덕구 내에 과학고 전환을 위한 최고의 적지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신탄중앙중학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탄중앙중학교가 아닌 조건을 충족시키는 적합한 학교가 대덕구 내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향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셋째, 신설은 안 됩니다. 지침으로 정해진 정부정책이고 이전에 있었던 부산, 서울, 경기, 대구 등과 같이 똑같은 사례가 있던 곳에서 전례가 없었을 뿐더러 아이들 교육상, 행정상, 예산상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의원님 그리고 대덕구민 여러분!

저는 대덕구민의 오랜 숙원에 답지하고 특히, 신탄진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의 지역균형 발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하는 충정에서 이런 결단을 내렸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탄중앙중학교는 폐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이름만 바뀔 뿐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과학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역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또 지역적으로도 너무 많은 예가 있습니다.

보성전문학교가 고려대학교가 되었고, 연희전문학교가 연세대학교가 되었고, 대전공고가 대전공전이 되고, 대전공전이 대전산업대학이 되고, 대전산업대학교가 오늘날의 한밭대학교가 되고, 대전대학교가 송전대학교가 되고, 송전대학교가 한남대학교가 되고, 우송고등학교가 대전상고가 되고, 충남상고가 중앙고가 되고, 이런 것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해야될 수 없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이름이 없어지는 섭섭한 마음, 지역 어르신들 마음을 십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고장의 후배들은 영원히 대대손손 명문 과학고등학교를 통해서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명문학교의 유치를 통해서 우리 대덕구 지역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저희 대전시 교육청은 신탄중앙중학교 교육가족들과 지역 어르신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후 가까운 장래에 존경하는 오태진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의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제안과 중재 그리고 신탄중앙중학교 교육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건대 지역 어르신들 대다수가 원치 않는 일을 교육감이 억지로 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어르신들과 지역발전과 그 다음에 지역교육을 위해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정책적 결단을 내린 교육감의 그 의지가 퇴색되지 않고

또 명문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해서 지역교육 발전과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득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좋은 결단, 좋은 결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후 아름다운 결말로 축복 속에서 대전과학고등학교가 출범하여 지역의 과학영재들이 행복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도우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역 어르신들의 넓은 마음으로 저의 충정어린 마음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